

코리안 르네상스 시대의 개막 2

지난해 프리즈 서울(Frieze Seoul)을 통해 아시아 미술계의 새로운 허브로 서울이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받은 데 이어 글로벌 아트 신에서도 한국인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미국 미술계에서 트렌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두 번째 주자는 신진 작가와 홍보전문가다.

freelance editor 박은희 words 김예지



Simon Ko, Stay,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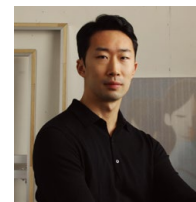
판타지와 현실 사이 그 어딘가, 사이먼 고(Simon Ko)

Q 작품을 보고 있으면 꿈결 같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주로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제 작업은 이상과 현실의 콤비네이션입니다. 작업 속 대부분의 도상들은 제가 아는 사람이나 직접 겪었던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실제 제 삶의 경험에서 시작되는 거죠.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라도 제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지 않은 작품은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글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품에 영감이 될 만한 단어나 문장들을 써 내려가곤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아이디어를 더 날카롭고 명확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Q 지금은 어떤 현실이나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작업을 하나요? 현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음으로써 연결된 두 사람에게 미치는 변화와 영향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인물 내면에 있는 이야기와 감정을 꺼내기 위해 필요한 색과 형태, 면의 강력한 조합을 찾는 것이 작가로서의 과제라 생각하고 작업합니다.

Q 얼마 전 LA의 롱 스토리 쇼트(Long Story Short)에서 오픈한 개인전 <Stay, Rainbow>에 대한 소개도 해주세요. <Stay, Rainbow(그대로 있어 줘, 무지개)>는 제 작업 속 인물들에서 영감을 받아 지은 건데, 제목이 주는 순진무구함이 마음에 들어요. 무지개는 일시적이잖아요. 무지개가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건 매우 순진한 소망인 건데, 이러한 소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런 순수함이 모든 관계, 미래, 그리고 사랑에 적용되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말이죠.

Q LA에서의 개인전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개인전 <Graphic>을 진행하는 등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나라마다 관객들 반응이 다른 편인가요? 한국 관객을 만나고 제 작품에 한국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작품의 텍스처가 한국적이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작품을 실제로 만져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흔쾌히 응하는 편이고, 실제로 작품을 함께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이먼 고 @simon.j.ko

미국 아트스쿨 쿠퍼 유니언(Cooper Union) 학사 및 예일대학교 회화과 석사 졸업 후 서울과 뉴욕, LA를 오가며 활동하는 사이먼 고(Simon Ko)는 사랑, 그리고 관계에 대한 고찰을 동화 같은 인물들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로맨틱하고 몽환적인 판타지 세계를 창조해 낸다. 작가만이 펼쳐낼 수 있는 꿈결 같은 도상은 일상 속에 묻혀 있고 있던 인간 내면 깊은 곳의 동심과 사랑, 판타지를 자극한다.



Sarah Lee, The Black Tulip, 2022



Sarah Lee, The Night the Stars Fell, 2022

고요한 푸른빛 속으로 빠져들다, 사라 리(Sarah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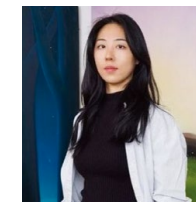
Q 시카고를 거쳐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등 다이나믹한 여정이 돋보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항상 한국 미술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 미술계를 경험해 보고 싶어 시카고에서 학사를 마친 후 한국으로 향했고 서울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그림을 왜 그리는가', '왜 회화인가' 등 철학적인 시작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작업의 시작점을 역추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미국 미술대학에서 배우는 접근 방식과는 달라 흥미로웠어요. 다양한 경험을 한 후 다시 시카고로 돌아와 석사를 마치고 지금은 뉴욕을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작품 속 배경들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워 현실에 존재하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상상 속 장소들이에요. 밤하늘, 달, 겨울 숲 등 고독함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고독한 밤의 고요함을 좋아합니다. 어둡고 고요한 밤이 찾아와 인간 본연의 연약함과 마주하게 될 때 오히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트 포 체인지(Art for Change)와 협업한 작업에도 이러한 주제가 담겨 있어요. 작업을 위해 자연재해 기록들을 찾아보다 1833년 뉴욕 하늘에서 이틀간 별 수백 개가 우수수 떨어졌던 자연현상을 기록한 삽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보는 순간 그걸 목격했던 사람들의 감정이 어땠는지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공포스럽지만 동시에 너무 아름다운, 바로 그 지점을 표현하고 싶었어

요. 달, 별, 검은 바다처럼 판타지스럽게 말이죠.

Q 블루 계열의 색이 많아서인지 우주 속으로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아무래도 상상 속 장소들을 그려내다 보니 요묘한 푸른 계열의 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또 밤에 관심이 많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소음이 전혀 없고 광활한 우주의 이미지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Q 뉴욕 아트 신의 중심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데 10년 후 작가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은 무엇인가요? 뉴욕 아트 신이 가진 매력은 흐름이 빨라서 예측할 수 없다는 건데요. 저는 이런 유행에 관계없이 꾸준히 작업하고 전시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10년 뒤 제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작가로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으면 해요.



사라 리 @sarahrlee

시카고 예술대학(SAIC) 회화과 학사 및 석사 졸업 후 브루클린을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사라 리(Sarah Lee)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생경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LA와 뉴욕의 다양한 갤러리에서 개인전과 그룹전을 진행했으며, 아방 아르테(Avant Arte), 아트 포 체인지 등과 협업하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컬렉터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올해 9월 뉴욕의 알베르츠 벤틀(Albertz Benda) 갤러리에서 개인전이 열릴 예정.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스토리텔러, 이윤선

Q 미국 아트 신에 발을 담그게 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려서부터 미술을 좋아했고, 항상 미술작품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궁금했어요. 미술사를 전공하면서는 더욱더 작품이면의 감동적이고 도전적이며 신기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스토리들을 나 혼자만 알 수 없어'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제 흥미가 본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분야가 미술 PR 분야였습니다.

Q 현재 근무 중인 FITZ & CO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뉴욕, LA에 메인 오피스를 둔 FITZ & CO는 문화예술 PR 및 마케팅 에이전시입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클라이언트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미술관, 갤러리, 아트페어, 비엔날레뿐 아니라 BMW 그룹 컬처(BMW Group Culture), 구글 아트&컬처(Google Arts & Culture) 등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브랜드들까지 다양합니다. 매 순간 수많은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쏟아지는 지금 같은 때일수록 클라이언트만의 독특한 색깔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조리하는 언어로 대중들에게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Q 미국에서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나요? 몇 년 전만 해도 베니스, 바젤, LA, 마이애미 등 주요 미술 도시를 배경으로 일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예술과 관련한 프로젝트도 다양하게 맡고 있습



이윤선

세계 최대·최고의 문화예술 전문 PR 회사인 FITZ & CO에서 VP를 맡고 있다. 비니스 비엔날레 멕시코관, 2020 도쿄 올림픽 아고라, 아트바젤 등 전 세계 아트의 신의 메가 플레이어들과 함께 일했으며, 현재는 키아프,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에서 한국 미술을 전 세계에 스토리텔링하는 역할을 도맡고 있다.

니다. 다른 도시에서 만났던 전 세계 아트 피플들을 '키아프리즈' 기간 동안 서울에서 만났는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현상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Q 현재 가장 눈여겨보는 한국 작가가 있다면요?** 이목하 작가입니다. 올해 아트바젤 홍콩 때 제이슨 함 갤러리에서 소개했었죠. 젊은 여성들의 초상화를 중심으로 그려내는데, 작품들이 묘하게 매혹적이면서도 그 속에서 불안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주로 소셜미디어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하는데, 작품들이 아름다우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복잡미묘해요.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작가입니다. 아직 신진 작가임에도 페어 현장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좋은 작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마련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Q 미국 아트 신에서 현재 가장 눈여겨봐야 할 갤러리도 추천해 주세요. 맨해튼 노호 부근에 자리한 팔로(Palo) 갤러리를 꼽고 싶어요. 2018년 문을 열었는데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전시 기획 또한 돋보이는데 '블루'를 주제로 현대의 작가들이 파란색을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는지에 대한 전시를 한다거나, '컬렉팅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전시를 준비하는 등, 기존의 '갤러리는 이래야 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갤러리입니다.

Q 뉴욕 아트 신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으로서 앞으로 꿈꾸는 행보도 궁금합니다. 한국 문화예술의 위상이 매우 높아진 과도기에 함께 선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함께 잘 이끌어가고 싶다는 생각인데요. 현재와 같은 상황일수록, 단일하게 '호시절'을 즐기기보다 어떻게 이 파도를 잘 타서 한국의 문화예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 가능하게 키워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갤러리들의 자본 유입, 시장의 폭발적 성장 같은 단발성 키워드보다 한국 작가, 프로페셔널들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등을 잘 고려해서 차근차근, 하지만 빠르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

글쓴이 김예지(@yayyjiiii)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학과 미술사학을 전공한 뒤 영국 런던 SOAS대학에서 미술사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서울옥션 홍콩 경매팀과 글로벌 사업팀을 거쳐 전시 기획, 국내외 갤러리, 기관, 작가들과 협업하며 글로벌 미술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현재는 세계 최대 글로벌 온라인 미술작품 거래 플랫폼 '아트시(ARTSY)'의 아시아 비즈니스팀 서울 담당 디렉터를 맡고 있다.